

Cover Story



# 지상사 대졸 평균 초봉 3만3000불

지난 5월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아시아 취업박람회 참가한 한인 젊은이들. 지상사들은 대졸자에게 3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.

한국 지상사들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약 3만 3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리쿠르팅 전문업체 세스나(사장 김선민)는 28일 미주에 진출한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LG 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 지상사 중심으로 실시한 '미주 한인기업 임금 및 복지 조사'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.

또 이들 기업의 평균 초봉이 5년전에 비해 6.4% 가량 올랐다고 밝혔다.

이는 지난 5년 간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.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한 미국의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5.02%였다.

조사결과 직원 수가 많을 수록 연봉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직원수가 200명 이상인 지상사 및 한인 기업의 초봉은 연간 평균 3만5000달러로 5년전과 비교해 5.7% 인상됐다. 비교적 대형 의료보험과 치과 보험, 은퇴연금 프로그램 401k도 제공한다.

직원수 100~200명 규모 기업의 대졸 신입직원은 연간 3만 2000달러를 받았다. 이는 5년전보다 6.6%가 오른 수치다. 이들은 의료보험 정도의 베네핏을

◇ 지상사 업무에 따른 초봉

업무	연간 평균 초봉	5년간 인상률
소프트웨어 엔지니어	3만8000달러	+2.7%
마케팅	3만8000달러	+5.5%
세일즈	3만5000달러	+2.8%
파이낸스	3만5000달러	+5.7%
생산	3만5000달러	+5.7%
어카운팅	3만2000달러	+6.6%
물류관리	3만2000달러	0%
구매	3만2000달러	+6.6%
관리	3만달러	+3.5%
HR	3만달러	0%

어카운팅, 구매, 물류관리(로지스틱스) 분야의 초봉은 연간 3만2000달러였다. 어카운팅과 구매 분야는 5년전보다 초봉이 6.6%가 인상된 반면 물류관리는 변화가 없었다.

관리 및 인력관리(HR) 분야 초봉은 연간 3만달러였다. 관리 부서는 3.5%가 인상된 것이며 HR분야는 정체된 것이다.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.

직원수가 200명 이상인 뉴욕 지상사의 인사부문 한 실무자는 "임금 수준에 큰 변화는 없지만 평균 물가상승률이 평균 4%가 넘기 때문에 5년 동안 6.4% 인상은 사실상 연봉 수준이 줄어든 것"이라고 말했다.

세스나의 김선민 사장은 "미주에 진출한 지상사들의 직원 대우가 장기적으로 나아지고 있다"며 "하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근 2년간 평균 초봉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"라고 말했다.

조사대상 50개 업체 가운데 한인 기업 사우스폴, 제이원, 로얄소버린, 맥스라이트 등 4곳이 포함됐다. 또 30여개가 뉴욕·뉴저지 지역 기업이었다.

한정연·LA 서기원 기자  
hjy\_ny@koreadaily.com

## 리쿠르팅 업체 '세스나' 조사 보고서

### SW엔지니어·마케팅 부문 '최고'

받는다.

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의 초봉은 5년전보다 7.1%정도 오른 연간 3만달러였다. 대다수 이들업체는 베네핏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회사내 업무 부문에 따라서도 평균 초봉은 연간 8000달러까지 차이가 났다.

초봉이 가장 높은 업무 포지션

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마케팅 분야로 초봉이 연간 3만8000달러였다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5년전에 비해 초봉이 2.7%, 마케팅 분야는 5.5% 올랐다.

세일즈와 파이낸스, 생산 분야가 연간 3만5000달러로 뒤를 이었다. 세일즈 분야 초봉은 5년전보다 2.8%, 파이낸스와 생산 분야는 5.7%가 각각 인상됐다.